

광주 살아? 이 앱 들어봤어?

맛집·카페·여행·광주·의 다양한 가게·한눈에
잇업으로 핫플 추천, 쿠폰으로 혜택받자!

모두의 쿠폰 잇업

광남일보

쾌적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DK 다케이 주식회사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

전기냉장보관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전자기파차단기 | 전기방수기



푸른 파도와 백사장 ‘전남의 여름’ 열린다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여기가 핫플 ‘전남 해수욕장’

내달 24일까지 51일간 운영
 54개소 해수욕장 문 열어

여수 방죽포, 가장 먼저 개장
 ‘캠핑·야영’ 머무는 여행 가능

명사십리·울포솔밭·외달도 등
 피로도 풀고 특별한 체험 가능

△여름의 문을 연다. 전남 해수욕장 개장
 뜨거운 햇살이 수평선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깨어나는 것은 바다가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이다. 도심을 벗어나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갈증, 소금기 머금은 공기와 찰랑이는 물결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은 그리움. 그 모든 여름의 갈망에 가장 먼저 응답하는 곳이 있다. 바로 전남 바다.

올여름 전남에서는 12개 시·군, 총 54개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그 시작은 여수의 ‘방죽포 해수욕장’. 7월 5일 가장 먼저 개장한 이곳은 44일간 피서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잔잔한 수면과 가족 친화적인 시설로 사랑받는 방죽포는 도시와 가까우면서도 조용한 힐링을 선사한다. 주변에는 캠핑장과 야영장도 마련돼 있어 당일치기보다 머무는 여행지로도 제격이다.

이어 7월 11일에는 장흥군의 ‘수문 해수욕장’이 문을 열고, 7월 12일부터는 목포 ‘외달도’, 보성 ‘울포솔밭’, 완도 ‘신지명사십리’ 등 본격적인 여름 피서지가 속속 개장에 돌입한다. 특히 울포솔밭은 해변 뒤편으로 우거진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드리워져 있어 피서와 삼림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바로 옆에는 노천 해수탕이 있어 따뜻한 해수욕을 즐기며 피로를 풀 수 있는 특별한 체험도 가능하다.

완도군의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은 이름 그대로 4km에 이르는 백사장이 장관이다. 맑고 따뜻한 물, 완만한 수심, 깨끗한 시설 덕분에 매년 가족 단위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백사장 양쪽에는 간이 샤워장과 화장실, 편의점, 지역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부스도 마련돼 있어 하루 종일 머물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7월 중순 이후엔 고흥 ‘용동’, 진도 ‘가게’, 해남 ‘송호’, 무안 ‘홀통’, 영광 ‘가마미’, 함평 ‘돌머리’ 해수욕장이 줄줄이 개장한다. 특히 가마미 해수욕장은 서해안 낙조 명소로 유명하며, 돌머리는 갯벌 체험이 가능해 아이들과 함께 자연학습형 피서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7월 23일 문을 여는 여수의 ‘거문도 송이도 해수욕장’은 배를 타고 들어가는 섬 속 비경으로, 조금 더 특별한 바다를 원한다면 강력 추천할 만한 곳이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이곳은 스노클링과 낚시 명소로도 이름난다.

신안군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미소가 지어지는 ‘짬뽕어 해수욕장’과 하트 모양의 지형으로 유명한 ‘하트 해수욕장’도 주목받고 있다.

이외에도 ‘관매도’, ‘금갑’, ‘분계’, ‘풍류’ 등 낭만적인 이름을 지닌 해변들이 순차적으로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일부 해수욕장은 하루 100명도 채 되지 않는 조용한 여행객만이 찾는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전남 해수욕장은 단순한 휴양지를 넘어 지역의 삶과 문화가 녹아든 공간이다. 해변 인근에서는 어민이 직접 잡아 올린 전복과 멸치, 김 등을 살 수 있고, 마을 이장님이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관광지와 일상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그 풍경은, 어느 바다와는 다른 ‘전남 바다’만의 여유와 매력을 전한다.

△‘안심여름’ 전남도의 빈틈없는 준비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일수록,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안전’이다. 전남도는 올해 여름을 맞아 도내 66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4월부터 6월까지 이어진 이 점검을 통해 데크 파손, 경고 표지 미설치, 안전장비 고장 등 총 14건의 사안을 신속히 조치 완료했다. 주요 동선에는 미끄럼 방지판과 발 씻는 공간도 새롭게 보강됐다.

또한, 전남도는 해수욕장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소방·해경·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해수욕장에 맞는 긴급 대응 시나리오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10일에는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비상 연락망 점검과 현장 대응 훈련도 실시했다.



여수 모작관 해수욕장



신안 정동어 해수욕장

안전 인프라 확보에도 적극적이다. 총 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구명보트, 수상오토바이, 인명구조함, 조난 경고 사이렌 등 3718점의 안전장비가 해변 곳곳에 배치됐다. 각 해수욕장에는 1~5명의 구조요원이 교대로 배치되며, 총 271명의 전문 안전요원이 여름 내내 현장을 지킬 예정이다.

해파리 유입 우려가 높은 일부 해수욕장에는 해파리 방지막이 설치됐고, 해파리 모니터링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도는 물놀이 사고 예방 캠페인과 응급처치 체험 프로그램도 병행해 피서객 스스로도 안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8월 24일까지 이어지는 여름의 축제. 전남의 바다는 이미 준비를 마쳤다. 뜨거운 햇살과 질푸른 물결, 그리고 안전하게 설계된 풍경 속에서 여름, 전남의 바다가 시작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함평 돌머리 해수욕장



해남 송호 해수욕장

전남 해수욕장 개장 계획

시·군	해수욕장	개장현황	
		개장	폐장
목포	외달도	7월12일	8월24일
여수	방죽포·거문도·장동·안도·만성리·무술목·모시금·용천·남도	7월5일	8월17일
고흥	용동·연소·익금·금장·발포·나로우주·연포·덕흥·남열해둔이·대전·풍류	7월18일	
보성	울포솔밭	7월12일	8월24일
장흥	수문	7월11일	8월15일
해남	송호	7월18일	
무안	홀통·툼머리·낙지공원	7월18일	
함평	돌머리	7월17일	
영광	가마미	7월18일	
	송이도	7월23일	
	신지 명사십리	7월12일	
완도	신지 동고·금일명사십리·악산 가사·청산 지리·청산 신음·보길 예송·보길 중리·보길 통리·생일 금곡	7월25일	
진도	가게·금갑·신전·관매도		
신안	짬뽕어·대광·분계·하트·시목·도목·추포·배낭가미·설레미·백길	7월18일	